

전북 쌀 '예담채 심리향미'

전국마트·슈퍼서 만난다

전북농협-롯데상사, 판매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500여개 롯데마트 등서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8일 지역본부 상환실에서 (주)롯데상사와 전라북도 광역브랜드 '예담채 심리향미'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서광식 (주)롯데상사 글로벌사업 상무, 전봉구 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농협과 (주)롯데상사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예담채 심리향미'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10년 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예담채 심리향미는 밥을 지을 때 구수한 향이 심리를 간다는 '향미'로 전복도와 전북농협이 손을 잡고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전북 광역브랜드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1월 심리향미를 출시해 2019년산 110톤을 전량 완판했으며, 2020년에 생산된 686톤을 (주)롯데상사와 협력해 무세미와 완전미로 전국 500여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서광식 (주)롯데상사 글로벌사업 상무(사진 왼쪽)와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이 28일 전북농협 본부 사무실에서 전라북도 광역브랜드 '예담채 심리향미'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해 전량 판매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품질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는 전북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광역브랜드 예담채 심

리향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는 등 쌀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꽃꽃이엔 '국산 심비디움'

농진청, '기본 전환에 큰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실내를 화사하게 꾸미고, 기본 전환에 도움을 주는 꽃꽃이용 꽃으로 국산 '심비디움(난)'을 28일 추천했다.

절화(자른꽃) 심비디움은 행사장 장식에 많이 이용되는 대형 화분용 심비디움과 달리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꽃이다. 다른 꽃꽃이용 꽃의 수명이 일주일 정도인 것과 비교해 국산 절화용 심비디움 종에는 관리만 잘하면 3주일 이상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품종도 있다.

농진청에서 개발한 심비디움 가운데 분홍빛을 띠는 '해피데이', '러블리스 마일', '사이닝크' 등은 대표적인 절화용 품종이다. '해피데이'는 꽃대 길 14개 이상의 꽃이 달려 풍성한 느낌을 주고 꽃 배열이 우수해 보기에 좋다.

또한, 꽃대가 굵고 곧아 일본 뿐 아니라 미국 수출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러블리스 마일'과 '사이닝크'는 꽃 수명이 27일로 국산 품종 가운데 가장 길다. 두 품종 모두 꽃대가 곧으며, 색이 밝아 꽃꽃이용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 하얀색 대형종 '슈퍼스타'와 갈색 대형종 '탑바다'도 시장 보급을 준비 중이다. 절화 수명이 3주 이상으로 길며, 꽃대가 곧고 60cm 이상인 새 계통도 품종화한 뒤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가정에서 절화용 심비디움을



오래 감상하려면 꽃병에 꽃을 꽂기 전 깨끗한 칼로 줄기 끝을 사선으로 한번 더 매끄럽게 잘라 수분 흡수율을 높인다.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절화 수명 연장제나 설탕, 레몬즙, 소독제(락스)를 이용하면 꽃 수명을 약 4일 정도 늘릴 수 있다. 리더(L) 물이 담긴 꽃병 기준으로 싹트는 큰 찻숟가락 2~3회, 일반 락스는 작은 찻숟가락 1회, 레몬즙은 큰 찻숟가락 1회반 양을 넣어주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산업을 돌고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절화용 꽃 소비 활성화와 우수 품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H 전북본부,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양장'

LH전북본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중 건설현장 비산(날림)먼지 억제에 위해 급주 2개 현장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현장은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와 완주삼봉 A-3BL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으로, 현장 내 세륜차, 살수, 방진막 등의 비산(날림)방지 시설 설치 및 현장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다.

전북본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미세먼지 경보상황 발생 시 건설현장의 옥외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건설현장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격주로 전국 LH 건설 현장 중 2개 현장을 선정, 현장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

최근 2년간 100례 넘어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산부인과외의 로봇수술이 최근 2년간 100례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시행 중인 로봇 수술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8년 6건에서 2019년 58건, 2020년 55건 등 최근 2년간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봇수술은 작은 절개 부위, 통증과 출혈 감소, 빠른 회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질의 확대된 3차원적 입체 영상으로 최대 15배까지 원하는 부위를 확대해 볼 수 있어 정교함을 요구하는 미세 수술에 효과적이다. 또한 복부에 3cm 미만의 구멍을 내어 수술하기 때문에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도 짧아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 여성 환자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산부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궁근종이나 난소낭종의 경우 로봇 수술 시 자궁내막과 난소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자궁기능과 정상난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고난이도 수술이 가능해 가임기 여성 환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자궁근종 제거술의 경우 로봇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 출혈이 적고 근종 제거 후 섬세하고 촘촘한 봉합을 할 수 있어 안전성이나 가임력 보존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대면 수업 어려움 해소 위한 환경 자격증 교재 지원

전북녹색기업협의회, 도내 대학교에 300만원 상당

전북 녹색기업협의회는 지난 25일 전북대·군산대 환경공학과를 방문해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공학과 대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3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북 녹색기업협의회 회원사들은 ▲친환경 ▲저탄소 ▲녹색경영을 회사 경영 방침의 최우선으로 정하고 있다. 협회회의 이번 교재 지원은 앞으로 각 기업의 녹색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도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진행됐다.

현재 도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회원사는 (주)전주페이퍼, 동우화인켐(주), (주)전주KCC2공장, (주)한솔케미칼 전주



공장, (주)LG화학 생명과학 익산공장, (주)LG화학 익산공장, (주)만도 익산공장, 롯데칠성음료(주) 군산공장, IS엘트론(주) 전주공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등 10곳이 있다. /김윤상 기자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

'브랜드 아파트' 순창 남양휴튼

희소성·안정성·상품성 다 갖췄다

대형 건설사가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북 순창 지역에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돼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남양건설(주)의 '순창 남양휴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또한 순창군은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없어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인한 투자 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 남양휴튼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376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7개동, 전용면적 78㎡ 88세대, 84㎡ 254세대, 113㎡ 36세대 등 총 378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약 1.25대인 총 474대로 책정됐다.

▲지역 내 보기 드문 브랜드 단지... 특화설계는 물론 최신식 커뮤니티 시설 조성

순창 남양휴튼은 순창지역에서는 희소가치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져 안정성과 신뢰도, 우수한 상품성, 프리미엄 등이 기대된다. 또한, 향후 순창군 아파트 공급 또한 미지수라 더욱 더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양건설(주)의 남양휴튼(HuTon)은 Human Treasure On의 약자로 보석같이 소중한 삶의 가치가 살아있는 주거공간을 뜻하는 고품격 주거공간 브랜드다. 호남지역은 물론 서울 홍제동, 경기 구리 수택공, 파주 교하, 남양주 진접·별내 등 전국적인 시공실적을 자랑한다. 고품질의 철저히 하고 안전한 시공능력을 토대로 LH2019 우수시공업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남시향 68% 남동향 34%)와 함께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시공품질과 에너지절감을 높이는 한편,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혁신평면과 다양한 수납



순창 남양휴튼 조감도

남향 위주 단지 배치 고급마감재 사용

피트니스·북카페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 제공

편리한 교통·풍부한 인프라 학군 잘 갖춰 입지여건 우수

공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주위 고층건물의 부재로 풍부한 개방감과 일조량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피트니스, 북카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해 입주주민들의 소통과 활력 증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하고 편리한 교통·편의·학군·자연환경... 실생활하기에 좋은 입지여건

입지여건도 우수하다. 먼저 단지 앞 순창IC를 통해 광주대구고속도로, 원주순천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 가능하며, 시내권을 가로지르는 순창로와도 인접해 순창 시내를 물론 광주와 전주 등 어디로든 빠르

게 달을 수 있다. 근처에 버스터미널이 위치해 광역버스의 이용도 편리하다.

생활환경 또한 편리하다. 순창군청, 순창군법원, 순창보건의료원, 순창경찰서, 순창우체국, 군청교육지원청, 순창읍사무소 등 관공서와 가깝고 농협 하나마트, 순창종합시장 등 소규모시설은 물론 은행(신협, 농협), 군립도서관 등과도 인접해 윈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학군도 잘 갖춰져 있다. 육천초, 순창중앙초, 순창초·중·여중·고, 순창제일고 등 초·중·고가 가까워 12년 도보통학권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내 어린이집까지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자연환경 역시 쾌적하다. 심진강이 휘어감고 순창읍에서 내려오는 경천과 지척거리며, 1.5km에 이르는 강변 산책길을 단지 내 산책로처럼 이용할 수도 있다.

건설주력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377-3번지에 위치했다. 시행·위탁은 (주)에인D&C, 시공은 남양건설(주), 시행·수탁은 무궁화신축이 맡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난해 전북 수출 58억4630만 달러

코로나19 위기로 전년보다 10.6% 감소

올해는 호전돼 60억 달러대 재진입 기대

2020년 전북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6% 감소한 58억463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3% 증가한 약 60억5667만 달러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가 발표한 '전라북도 무역동향 2020년 실적 및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북 수출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8월까지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9월부터는 4개월 연속 5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2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약 5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월별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해 올해 수출 회복을 기대하게 했다.

2020년 전북의 수출 1위 품목은 정밀

화학원료이나 전년 대비 33.4% 감소한 4억99천만 달러에 그쳤다. 10대 수출품목 중 동제품(\$4억1045만, 19.3%), 농기계(\$2억9855만, 19.0%), 종이제품(\$2억2976만, 3.0%)은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했으나, 합성수지(\$4억2686만, -9.4%), 자동차(\$4억693만, -32.6%), 자동차 부품(\$2억1574만, -45.0%) 등의 주력 수출제품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12억9174만, -13.1%), 미국(\$9억2892만, 3.9%), 일본(\$3억8084만, -15.2%), 베트남(\$3억5210만, -16.0%), 폴란드(\$2억23만, 64.7%)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동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259.2% 증가하며 9위 수출 상대국에서 5위로 상승해 새로운 주력 수출시장으

로 발돋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전북지부는 올해 전라북도 수출은 약 3% 성장해 60억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 OECD 등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보다 약 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및 전년도 수출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강일 본부장은 "작년 전라북도의 수출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작년 9월을 기점으로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경제도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수출실적 개선을 기대해充满信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무역협회 등 무역지원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대면마케팅 관련 지원사업 이용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 창작동화책 '랜디, 밤송이를 부탁해' 화제

국내 공공기관 최초

마스코트 활용해 제작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공공기관 최초로 아이들을 위한 창작동화책을 제작·배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LX는 저출산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창작동화책 '랜디, 밤송이를 부탁해'를 제작해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공공도서관 7000여 곳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랜디, 밤송이를 부탁해'는 LX의 마스코트 거북이 '랜디'가 지구본 요술 등 기발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숲속 친구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이야기로,

5~7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4만부 제작됐다.

이번 창작동화책은 캐릭터를 활용한 기관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친근한 기관 이미지를 알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e-book으로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편, LX는 랜디를 활용한 홍보로 '제2회 우리동네 캐릭터' 특별상(2019), '제6회 토이어워드' 공공캐릭터 특별상(2020) 등 대외 수상을 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